

아동권리를 더, 당신과 함께

Save  Children



국내사업 2022년 지원결과 보고

지난 한 해, 후원자님과 함께 만든
보석보다 귀한 변화와 성과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지난 한 해,
후원자님과 함께 만든
보석보다 귀한
변화와 성과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CONTENTS

- 01 2022년 국내 지원 결과 요약
- 02 학대 피해 아동 심리정서지원 사업
- 03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매뉴얼 지원 사업
- 04 빈곤위기아동 지원 사업
- 05 결식위기 아동 식사지원 사업
- 06 권리옹호 사업(인식 및 정책개선)
- 07 2023년 국내 지원 계획

Save  Children

P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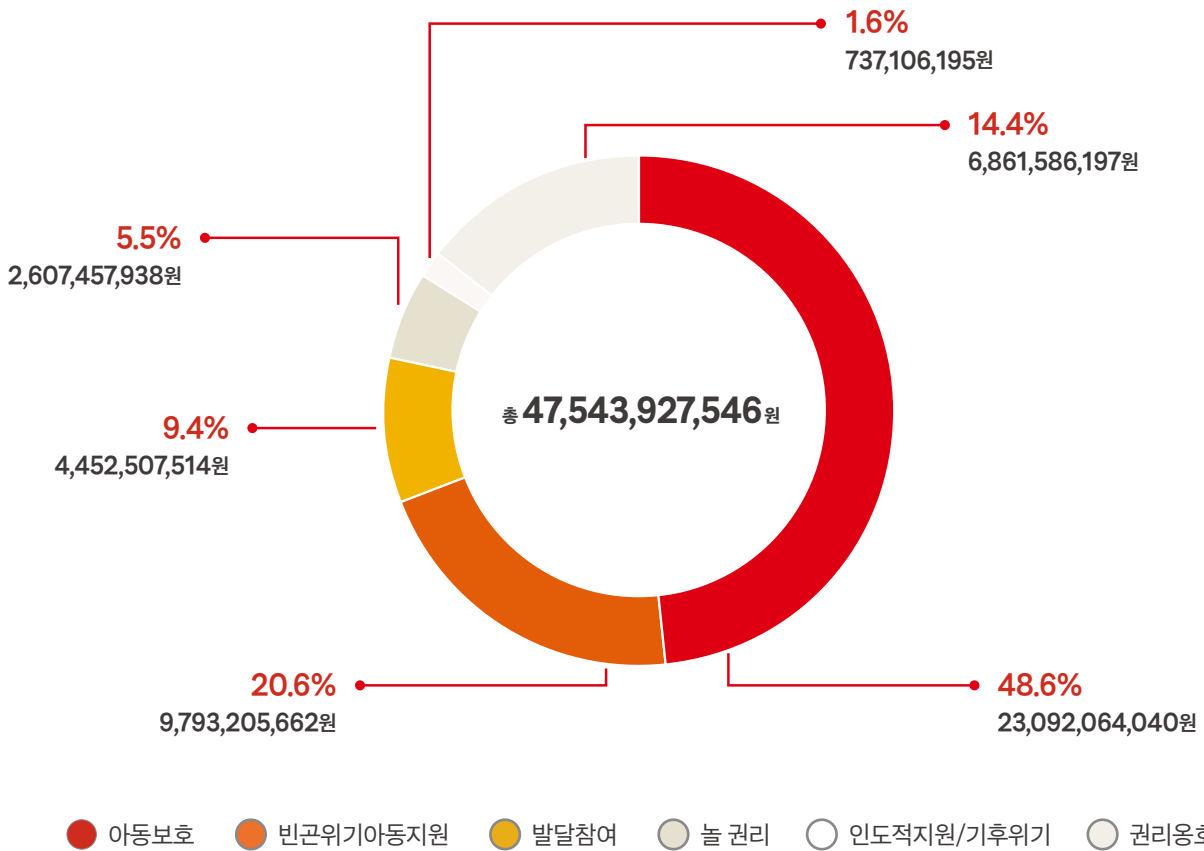
2022년
국내 지원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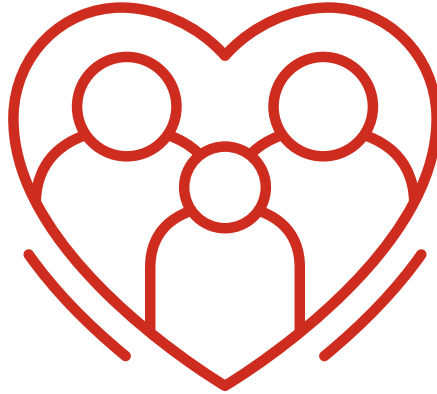
2022년 국내 지원 결과 요약

소중한 후원금 47,543,900,546원으로 국내 아동 총 338,843명을 지원했고,
국내 아동과 성인 4,170,461명이 인식 및 정책 개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2022년 국내 영역별 사업비



구분	세부 내용
아동보호	학대 피해 아동 심리정서 및 사례관리, 아동보호시설 지원(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가정위탁 지원센터) 등
빈곤위기아동지원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조부모 가정 아동 지원, 아동 식 사지원, 난민 아동 지원 등
발달참여	장애아동 놀이교사 지원, 지역 옹호 아동참여활동,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놀 권리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 놀이 환경 개선 및 진단 사업
국내 인도적지원/기후 위기	국내 재난 대응 활동, 기후 위기 아동권리교육, 지구기후위기팬클럽 ‘어셈블’
권리옹호	아동학대 사건 대응 및 정책개선, 보편적 출생 등록 도입 촉구,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아동권리교육, 장애아동 교육 및 인식 증진,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연구 등



**가정, 학교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서
모든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아동과 함께하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내 모든 아동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아동과 가정에게 현금과 현물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아동이 지내는 시설과 기관을 양적, 질적으로 개선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아동에게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인식을 바꾸어나가고 있습니다.

**한층 투명하고 상세한 후원사업별 성과 보고서로
후원자님을 찾아뵙겠습니다.**

2022년 국내사업 성과 보고서에서는 연차보고서에서 지면 관계상 다루지 못한 주요 사업의 심층적인 성과를 좀 더 투명하고 상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후원자님께서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직접 만든 멋진 변화를 확인해 주세요.

Save  Children

PART

2

**학대 피해 아동 심리
정서지원 사업**



학대 피해 아동 심리정서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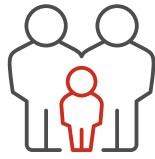


맞아도, 아파도 괜찮은 아이는 없기에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돕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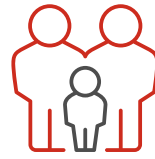
매년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들은 성장하면서 깊은 우울감을 겪거나, 자존감이 낮아지고, 일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지는 등의 심리적 후유증으로 오래 고통받기도 합니다.

후원자님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들의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 치유까지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아동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학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대 행위자, 가족 모두의 변화를 지원했습니다.

수많은 후원자님께서 학대나 방임으로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움을 보내주셨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여정이 쉽지 않고, 짧은 시간에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지켜봐 주시기에 아이들은 아이들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후원자님이 보듬어 주신 학대 피해 아동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동 1,026명



보호자 1,693명

학대 피해 아동 1,026명과 보호자 1,693명을 도왔어요.

전국 6개 지역(서울 마포, 인천, 안산, 부천, 대전 서부, 울산)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 1,026명에게
심리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고, 보호자(학대행위자) 1,693명이
상담과 긍정적 양육 방법 교육을 지원했어요.

심리정서지원,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아동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시 검사를 진행하고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2. 전문 치료사가 심리치료를 진행합니다. (평균 10~12회 진행)
3.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여 치료 연장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아동이 심리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했다고 판단되면 심리 치료를 종료합니다.
5. 평소 아동과 함께 생활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도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여 긍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호자에게도 심리정서지원이 필요할까요?

보호자의 변화 = 아동학대 근절의 시작

학대 피해 아동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는데 보호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은 성인이 되기까지 꾸준한 보호가 필요할 뿐 아니라 많은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보호자가 학대 행위를 중단하고 긍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는 부모로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재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회복을 돕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호자들은 어린 시절 학대의 경험을 반복하기도 하고, 또 일부 보호자들은 ‘학대인지 몰랐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몰라서’ 아동학대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보호자(학대행위자)가 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보호자(학대행위자)에게도 상담을 진행하고 아동 권리와 긍정적 양육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심리정서지원이 이뤄지는 공간을 소개합니다.



아동 심리치료실(놀이치료)



가족상담실



상담대기실 전경

“회복과 치유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많이 불안했는데, 선생님과 여러 놀이 활동을 하면서
제 마음속 이야기를 많이 하니 마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심리치료를 받은 만 9세 아동



제가 아이에게 강하게 압박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뀌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어요. 교육을 통해서 아이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상담과 교육을 통해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아이를 잘 돌보고 싶어요.

상담과 교육을 받은 보호자
(중3, 중2, 초4, 신생아 양육 중)



제가 만난 아동 중에 불안정한 양육환경과 엄마와의 갈등으로 가정에서 분리될 상황이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공격성과 충동성이 높은 편이었지요. 아동에게는 놀이치료를 진행하였고, 학대행위자였던 엄마에게도 심리치료와 부모교육을 진행하였고, 함께 거주하며 주로 양육을 맡으셨던 할머니도 부모교육을 받으셨어요. 이후에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이 줄어들고 학교에서 일으키는 문제도 적어지고,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학대행위자를 보면 어릴 때의 양육 경험을 그대로 아동에게 드러내거나, 어린 시절 상처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어릴 때 심리치료를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학대 피해를 입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절한 심리치료가 지원되어서 미래에 이런 학대로 인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마포 아동보호 전문기관 박지연 치료사

“
**후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

후원자님 덕분에 아동학대로 상처를 받아 말을 안 하던 아이가 말을 하게 되고, 학교를 거부하던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고, 자해와 자살시도로 힘들어하던 아이가 새로운 삶에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함께 해 주신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ave  Children

PART

3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매뉴얼 지원 사업**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매뉴얼 지원 사업



**전국의 모든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아동에게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동학대 사례 판단 이후 원 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없는 아동들 중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지내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을 아동에게 안전하게 지내며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240개소까지 증설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학대 피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쉼터들이 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안정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2022년부터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위한 자체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정부 주도의 매뉴얼 개발을 목표로 직접 전국 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조금 포근한 환경에서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아동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전국 학대 피해 아동 쉼터 30곳을 지원했어요.

이는 전국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3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2022년 말 기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이렇게 지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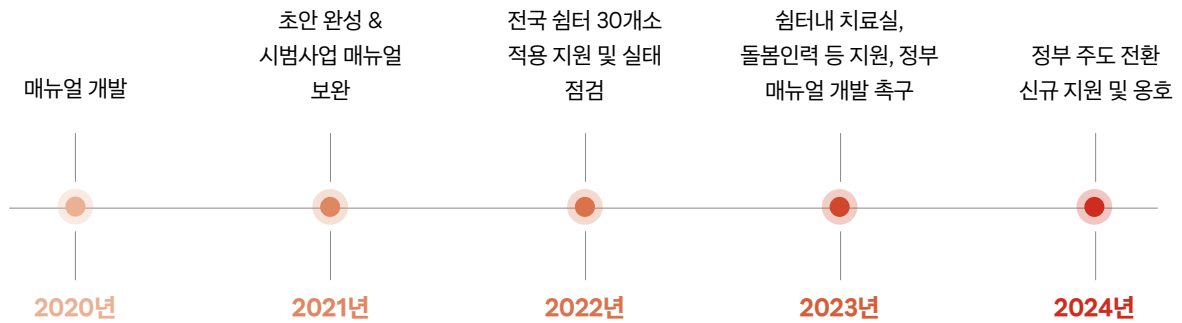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매뉴얼을 소개합니다.



향후 계획 및 중장기 전략

세이브더칠드런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부가 직접 매뉴얼을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국내 모든 쉼터에서 지내는 학대 피해 아동이 양질의 환경과 프로그램을 통해 쉼터에서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지원



새롭게 탄생한 놀이방과 책걸상



심리정서지원 도구 구입



교육지원 - 학습지



문화활동 - 여행

“쉼터에서 시작된 변화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수현이(12세, 가명)는 유아기 때부터 아동 양육시설에서 성장하다, 양육시설에서 생긴 문제로 쉼터에 입소한 초등 6학년 아이예요. 또래보다 작고 왜소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보다는 숨기고 배려하는 데에 익숙한 편이죠.

세이브더칠드런의 문화활동 지원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학대 피해 아동들은 쉼터에 오기 전에 가정에서 문화활동이나 여행 경험이 부족한 편입니다. 수현이도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탔고, 제주도까지 가는 1시간 내내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바닷가에서는 모래사장에 ‘어린왕자’를 크게 그려서, 감사 선물이라고 보여줘서 모두 감동했어요.

수현이는 여행 이후에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는 일이 많아졌고,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변화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요. 수현이에게 이 여행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이 됐는지, 달라진 모습이 정말 큰 감동이었어요. 수현이와 우리 쉼터 아이들에게 이런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꿈마루서울시립학대피해아동쉼터
정신영 팀장

“
**후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

후원자님 덕분에 아동학대로 상처받고 가정에서 분리되어야 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과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전국의 모든 학대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하며 회복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Save  Children

PART

4

빈곤위기아동
지원 사업



빈곤위기아동 지원사업

가난이 아이들의 마음을 꺾지 않도록,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을 지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유행어를 아시나요?

지난 한 해 우리 사회에 많은 분들이 이 말에 격려와 응원을 받았습니
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아이들
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은 마음을 지키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에게 힘을 보태주신 후원자님 덕분에, 세
이브더칠드런은 국내 저소득 가정 아동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
도록 생필품부터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까지 꼭 필요한 지원을 전달했
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큰 희망을 얻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022년 한 해 빈곤 위기 아동 및 가정 **98,466명**에게
총 **8,166,667,844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아동 및 가정 98,466명



총 후원금 8,166,667,844원



생계

- 식료품 및 생필품 구입비
- 겨울철 난방비, 방한용품, 여름철 냉방용품
- 단전, 단수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과금 납부 등

교육

- 영유아 보육료
- 교복 구입 및 기숙사 비용, 학교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진로 준비를 위한 ICT 및 금융교육 등

주거환경

- 누수 차단, 노후주택 정비, 화장실 개보수
- 재해 지역 주거복구, 장애 아동 주거환경 개보수
- 강제퇴거, 자연재해 시, 월세 비용 등

의료

- 병원 검사 및 치료, 수술 및 약제비
- 심리검사 및 상담, 치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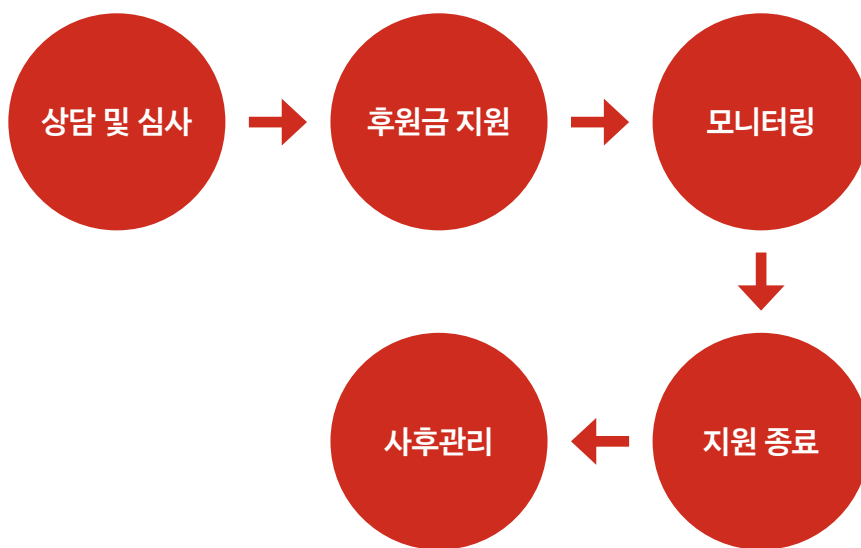
아동
보호자
지원

- 아동의 유일한 보호자 대상 의료비 지원
- 조부모 가정에서 양육을 어려워하는 조부모 대상 맞춤 상담 및 교육 등



어떤 기준으로 지원 아동을 선정하나요?

세이브더칠드런은 국내 법정 저소득 가정 및 일반 저소득 가정을 지원합니다. 가구원 소득 합계액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정 중에서도 가정의 구체적인 상황을 심사하여 도움이 시급한 아동과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이 완료된 후에도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희망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세인이는 엄마와 단둘이 지냅니다. 세인이 어머니는 당뇨합병증으로 망막이 손상되어 실명 상태에 가까운 시력입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외출이 불가능하고, 경제활동도 어렵다 보니 월세까지 밀릴 만큼 힘든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계속 집을 비워달라고 말하지만, 세인리와 밥 한 끼 먹을 돈도 없기에 이사를 갈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한참 자라고 있는 세인이 학용품이며, 영양가 있는 식사도 챙겨주질 못했습니다.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밀린 월세를 해결하고, 세인리에게는 새 책상과 학용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료품도 지원했습니다.

“먹는 거 지원해 주신 게 제일 좋았어요. 세인이 굶기지 않아서요. 진짜 힘들었을 때는 돈이 모자라서 굶는 날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몸이 좀 더 좋아지면 저도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싶어요.”

앞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세인이 어머니의 망막 수술 지원과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 준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인리에게는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심리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계지원을 받은 세인리(가명, 13세) 어머니

“
**후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

후원자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안전한 집에서 지내며 걱정 없이 새 학용품을 사용하고 아플 때는 치료를 받고 진로에 필요한 공부를 하며 희망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 덕분에 아이들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아동 상황에 맞는 꼭 필요한 지원을 전달하고,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아이들과 함께하겠습니다.

Save  Children

PART

5

결식 위기 아동
식사지원 사업



결식 위기 아동 식사지원 사업

몸과 마음 모두 배부르고 든든하게,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밥은 먹었니?”, “식사하셨어요?”가 안부를 묻는 인사말일 만큼 ‘밥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그러나 여전히 제대로 된 한 끼 식사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든든한 후원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규칙적이고 건강한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결식 위기 아동에게 밀키트와 도시락 지원을 비롯하여 아동의 기초 영양 상태와 건강을 위해 검진 및 영양제, 주방환경 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배부르고, 마음 든든해지는 우리 아이들 ‘밥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전국 저소득 가정 아동 909명 (501가구)을 지원했어요.

장애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결식 위기 저소득 가정에 정기적인 식사를 포함하여 영양 검진, 영양제, 주방 환경 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우유

우리 아이들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매주 저염식, 건강식 위주의 반찬으로 조리된 완제품과 쉽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를 제공합니다.



완제품 주 3회 - 반찬 도시락



밀키트 주 2회 - 제육볶음 & 김밥 등

따뜻한 밥 한 끼에서 시작된 **즐거운 변화**

1

걱정 없이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편의점에서 저렴한 간식으로 끼니를 때우기보다는
가정에서 밥과 반찬을 골고루 먹기 시작했어요.

2

아동과 가족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밥을 먹고 요리하며 대화가 늘어나고
가족관계가 회복되어 식사가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3

아동이 균형 잡힌 식사와 영양소에 대해 이해하고 요리를 배우고 즐기게 됐어요!

영양 및 건강 교육을 통해 음식에 대한 아동의 생각이 변화하였고,
직접 요리에 도전하면서 요리를 즐기게 되었어요.

“건강한 성장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예전에는 편의점에 가서 과자나 라면을 많이 사 먹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먹지 않아요. 간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줄었고요. 채소를 싫어했는데 직접 고기랑 같이 볶아서 먹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편식을 안 하게 되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식사 지원을 받은 아동

전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맞춰서 식사를 하기에는 어려웠어요. 세이브더칠드런 덕분에 영양이 풍부한 균형 잡힌 반찬, 샐러드 등을 지원받아 아이들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 때문에 아이들 식사를 챙겨주지 못하는 날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덕분에 아이들 끼니에 대해 걱정을 덜 수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 모여 대화하며 식사하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반찬 준비와 요리를 함께하니 사춘기 아이들과 사이가 더 좋아졌습니다.

다자녀를 양육하며 식사지원을 받은 보호자

“
**후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

후원자님 덕분에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요리를 배우며 식사와 즐거움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영양을 골고루 갖춘 식사와 다양한 지원으로 우리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멋진 꿈을 펼치는 어른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아동이 ‘밥’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Save  Children

PART

6

**권리옹호 사업
(인식 및 정책개선)**



권리옹호 사업 (인식 및 정책개선)

**아동권리를 지키기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
우리 사회의 인식과 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빈곤, 학대, 기후 위기, 학교 교육, 장애 아동의 권리 등...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어려움에 처한 아동을 직접 도울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굳어진 관습과 인식, 제도와 시스템이 바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 주변 어른들의 생각이 바뀔 때마다, 법 조항에 쓰인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바뀔 때마다 우리 사회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근본적, 장기적으로 너무나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후원자님 덕분에 아동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동학대 대응 정책을 바꾸기 위한 노력과 기후 위기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세요.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정책을 바꿉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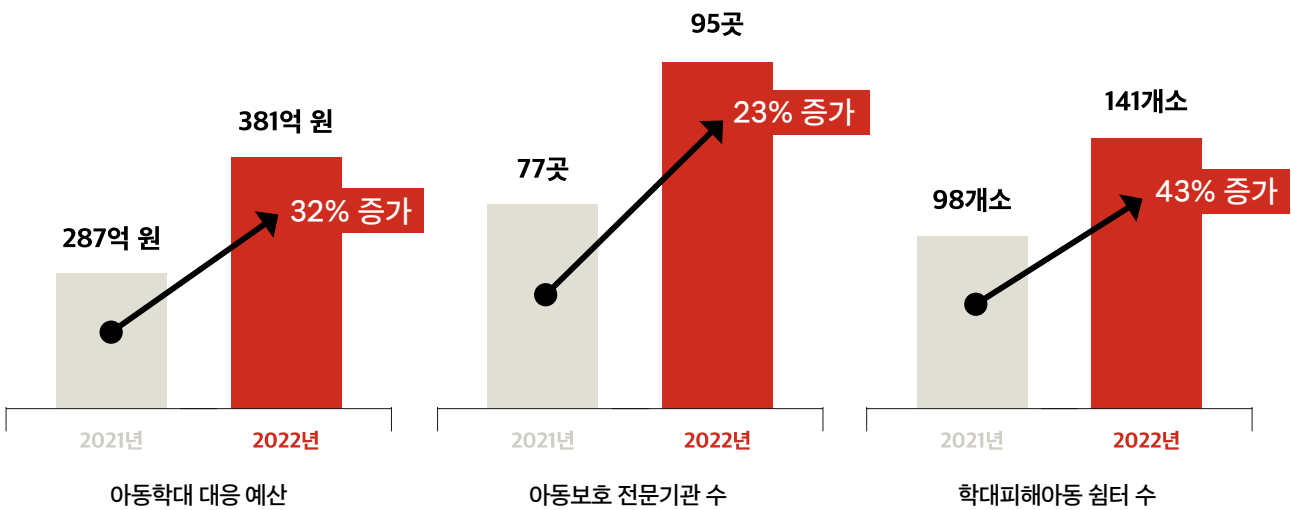


1.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 캠페인 서명 참여자 44,027명 (2022년 12월 기준)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아동학대대응 정책개선 캠페인에 모델 겸 배우 장윤주님께서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서명은 2023년도 아동학대 대응 예산 확충을 위한 연구결과와 함께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2. 아동학대 예산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제안서 및 서명 전달(2월)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주요 대선캠프 미팅
- 2021년부터 참여해 주신 서명 4만 6,060건 전달
- 2021년 대비 2022년 정부 예산 및 인프라 확충 성과



※ 아동학대 대응 예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 기준

※ 2021년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수: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기준

※ 2022년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수: 보건복지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재분석 기준

3. 대법원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개선(2월)

행정예고 의견을 제출하여, 대법원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에 보호자의 체벌이나 훈육을 아동학대 범죄의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로 인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4.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를 위한 언론 보도 기준 개정/강화(6월)

언론의 아동학대 신고자 노출 사례를 수집하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11개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통해 기사가 정정 및 철회 시켰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시정권고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시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2022. 06. 29)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언론 보도 기준을 발표

5. 성폭력 피해 아동 영상 진술 증거능력 상실에 대한 대안 입법 활동

2020년 기준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3,397명에 이릅니다. 하루 평균 9명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조사 과정을 담은 영상이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명시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을 위헌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여러 차례 직접 증언하거나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반복된 진술과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법무부에 입법예고 의견을 제출하고(5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성폭력 처벌법 대안 입법 간담회를 열어 대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9월). 또한 박주민 의원을 통해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입각한 성폭력 처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9월)

발의된 법안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 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동, 스스로 권리의 중심에 서다



흔히 말하는 ‘아동은 내일의 주인공’이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은 자라나는 아동이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말이겠지요.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이 미래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우리 사회를 직접 바꿀 수 있는 존재, 사회 변화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엄연한 권리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 위기’ 상황에서 아동이 중심이 되어 기후 위기 대응에 목소리를 내는 아동 참여형 모임인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을 2022년 9월 발족했습니다.

선발된 20명의 창단 멤버들은 직접 ‘지구를 위해 모였다(Earth+Assemble)’라는 의미를 담은 팬클럽 이름 어셈블(Earthemblem)과 로고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셈블 멤버들은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기후 위기 현안을 논의하고, 대중에게 기후 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소중한 지구를 위한 ‘덕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제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7)에 앞서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아동의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담아 정부 대표단에 전달했습니다. 협상대표인 김효은 대사는 “아동·청소년은 기후변화에 있어서만큼은 미래세대가 아닌 현재 세대이며 당사자”라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잘 듣고 국제사회에 전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 세이브더칠드런 유튜브의 강연 프로젝트오픈마이크 시즌 4에 출연하여 <기후 위기 - 어른이 묻고, 아동이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직접 기후 위기에 대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 한겨레 신문에 아동 기본법 릴레이 기고 환경권 편에 <더는 방치할 수 없는 기후 위기 논의... 아동·청소년에 더 많은 참여 기회를>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기고했습니다.
- ‘아동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 기본법 토론회’(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및 국내 아동 단체 6곳 공동 주최)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아동도 환경권의 주체임을 법률에 명시함과 동시에 환경 교육 확대, 기후 위기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발표했습니다.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 발족식



COP27 정부 대표단에 공식 입장문 전달

“
**후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

후원자님 덕분에 우리 사회의 인식과 정책을 바꿀 수 있었고, 아동 스스로 권리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후원자님의 든든한 지지에 힘입어, 더 많은 아동을 구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포기하지 않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Save  Children

PART

7

2023년
국내 지원 계획



아동권리를 더, 당신과 함께

Save 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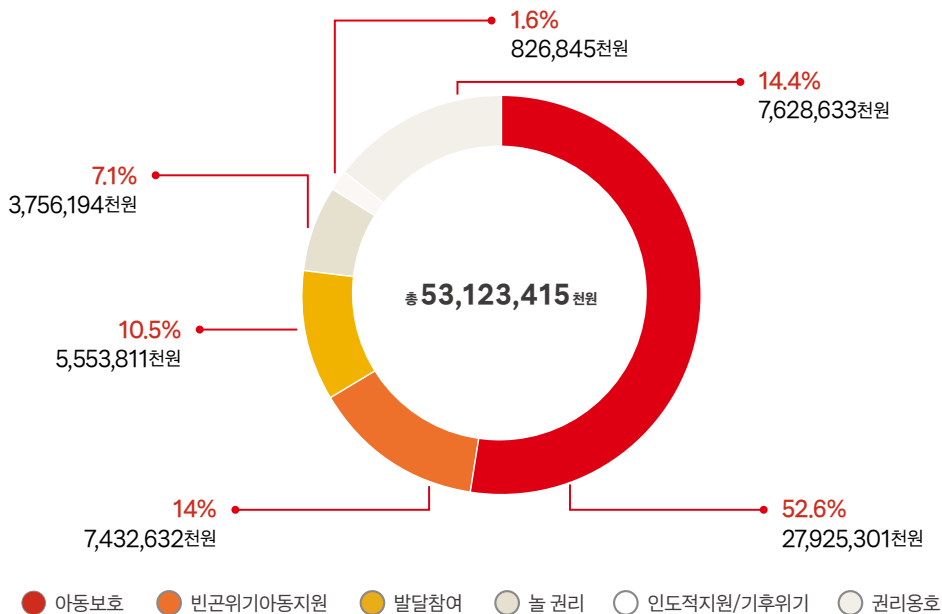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만든 변화와 성과 참 멋지지 않나요?

세이브더칠드런은 2023년도에도 후원자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아동보호, 빈곤아동 지지기반 마련, 발달 참여, 놀 권리, 인도적 지원/기후 위기, 권리옹호 영역에서 아동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후원자님은 도움이 절실한 우리 아동들이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존재입니다. 후원자님의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세이브더칠드런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장 먼저 달려가,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국내 아동을 위한 소중한 후원금,
2023년도에도 꼼꼼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2023년 국내사업 영역별 사업 예산 계획



앞으로 더 자주, 아동과 후원자님께 모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사업보고서를 비롯하여 온/오프라인의 사업보고회와 만남을 통해 정기적으로 투명하고, 상세하게 후원의 성과를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후원자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주소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74 (우) 04080

대표번호 02-6900-4400 (오전 9시 - 오후 6시)

홈페이지 www.sc.or.kr